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차

전주시, 자문위원회 구성·주민협의체 개편해 단위사업추진계획 수립키로 현장지원센터 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대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 기반형 부문에 선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경제기반형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기존 임시주민협의체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개편해 단위사업추진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숲1963 홍보관 옆에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전주대학교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의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신경제거점 전주'를 비전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인근 등 약 50만㎡ 부지에 63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558억 원, 공기업(LH) 창업 지원주택으로 232억 원, 로파크 건립 등 부처협업사업으로 925억 원, 시립

미술관 건립 등 지자체사업으로 535억 원, 전시컨벤션센터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407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협력해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I-Town) △전주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건립(S-Town) △저탄소 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에 나선다.

I-Town은 메타버스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산업 및 첨단기술 관련 생태계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구축된다. 대학생들과 청년,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을 조성해 메타버스 기술 관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공간이다.

S-Town은 I-Town에서 발굴된 첨단 문화기술 아이디어와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창업활동 지원 거점이자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으로 건립된다. 이곳에서는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교육·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 사업지구 내 골목길과 광장이 창업 문화거리로 조성되며, 스마트가로 등 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개선된다. 전북대학교 상인회와 학생회는 문화공연과 함께 환경 정화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기업 사업으로는 총 120세대 규모의 창업지원주택 조성 사업이 있다. S-Town 입주기업과 창업자, I-Town 학생 등을 대상으로 50%인 60세대를 우선 공급된다.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돌봄시설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청년 창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윈소통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처연계 사업으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로파크 건립,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지역항개발(LID) 사업, 시립미술관 건립, 하늘길 조성, 경관도로 조성 등의 지자체 사업과 전시컨벤션·호텔·백화점·아트리움을 구축하는 민간 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266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8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내는 등 침체된 덕진권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전주의 미래를 견인할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기준에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 정원의 숲과 연계해 전주발전의 이룰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일자리 활용 '맑은물 지킴이' 사업 큰 효과 거둬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중성)는 지난 4월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한 '맑은물 지킴이'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수돗물 안정성 확보 등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맑은물 지킴이'는 20개의 노인일자리로 활용돼 노인 1619 세대를 찾아가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노인 인력들은 각 노인세대를 방문해 1차로 잔류염소측정기로 수돗물 염소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안내했으며, 2차로 실험실 세부항목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수해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인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주시는 다음 달 초까지 전기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인근 외부 주차장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2개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청 내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3개가 구축돼 있지만 관용차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조성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20분이면 완충이 가능한 100kW 용량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시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위탁업체의 24시간 콜센터를 가동해 충전요금 결제요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100여 개로, 시는 전기차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



전주시는 시청 인근 외부 주차장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2개를 설치한다.

기 위해 충전소 인프라를 점차 확장하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거점 공간 도약

올 한해 청소년 성장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의 거점 공간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올 한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휴~후 프로젝트', '전주사람 프로젝트'와 '나를 찾는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야호학교 핵심사업인 '청소년 지치 프로젝트'를 총 110명과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기획·실행하는 게 핵심으로, '휴~후 프로젝트'의 경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나도 크리에이터!'와 축구 기본기를 배우는 '골 때리는 친구들' 등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추진됐다.

'전주사람 프로젝트 △드론축구 프로젝트 △디콘(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 △예술비상 프로젝트 △청소년 미디어 교육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특화 프로젝트' 또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됐다.

'전주사람 프로젝트'의 경우 신

홍·오송·화정·기전·덕일·용소·효문여중학교 등 총 3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 등을 글감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자긍심과 자기주도력을 높였다. 중앙·덕일중학교에서는 드론축구를 배우는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줬다.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3D프린팅, VR·AR 콘텐츠, 라이브커머스 등을 학습하는 디콘(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가 운영됐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으로는 청소년기의 일상과 고민, 사건 등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봉준호 따라잡기'와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이런 브이로그', 보이는 라디오를 체험해보는 '블로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주형 전환교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30명과 함께 추진된 '나를 찾는 아카데미'도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청소년 활동공간인 야호학교의 공간 구성에 303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프

로젝트에서는 목공품 조형물 제작 설치, 폴딩도어 클라스데코, 칠판아트, 액자벽화 그리기 등이 실시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직접 변신시켜 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야호학교 공간에서는 요리, 영화감상, 댄스, 여행, 뮤지컬, 밴드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삼삼오오 별별공리'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 청소년운영위원회(빛술) 청소년 위원 12명 모집, 청소년동아리 12개팀(72명) 운영, 전환교육활동가 35명 양성 등을 통해 전주형 전환학교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야호학교는 내년부터 전주형 전환기 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앞으로 야호학교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의 거점 공간으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주형 전환교육 야호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환기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며, 청소년들의 삶의 전환을 돕는 교육으로 주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방역패스 쉽게 확인' 특별방역관리대책 가동

전주시, 안심콜 방역패스·접종 완료 스티커 부착·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등 추진

전주시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콜 전화 시 접종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 일손이 부족한 골목식당에는 주요 시간대에 방역패스 확인을 돕는 인력을 배치하고, 예방접종을 한 시민들에게는 접종과 동시에 신분증 뒷면에 접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해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방역패스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특별방역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1일 최대인 73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12월 들어 일평균 4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080안심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방역패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콜 방역패스'를 시민 이용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콜 방역패스'는

'080 안심콜' 전화를 걸면 접종완료자에게 문자로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기존 안심콜 지원업종인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5종 1만2766개소에서 PC방, 목욕장, 노래방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16종 시설과 이·미용업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의무적용 외 시설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2만2400개소로 확대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업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시민들에게 접종 즉시 신분증 뒷면에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부착해 주기로 했다.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신분증만으로도 간단히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접종완료 스티커는 전주시에서만 인증 가능하다. QR체크 리더기가 없어도 접종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스마트기에 익숙지 않은 업주를 포함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패스 확인 부담

을 떠안던 골목식당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방역패스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손님이 밀리는 식사시간대에 방역패스 확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우선 완산구 중앙동과 덕진구 금안2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울러 시는 확산선별진료소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덕진선별진료소는 한국소리문화전당 맞은편 전주실내배드민턴장으로 옮기고 주말과 공휴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특히 덕진선별진료소는 3개였던 검체 라인을 8개까지 늘려 검사 가능인원을 1200명에서 최대 3200명까지 가능토록 강화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방역패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